47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의 의미(사27:1-2)
2002년 04월 03일

시 127:1 여호와께서 잠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흉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솔군의 경심함이 허사로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땀을 먹음이 헛되지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옮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파솔군의 경심함”이 헛되다는 것과 “수고의 땀을 먹음”이 헛되다는 부분만 인용하고 “잠을 주시는도다”는 어울리지 않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개는 그 인용이 잘못된 경우인데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의 인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상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표면적인 의미로만 사용함으로 “경심함”이나 “수고의 땀”은 그런 대로 얻는 것 같아도 “잠”이라는 부분에 오면 연결이 안 됨으로 문제가 되고 따라서 상정과는 전혀 다르므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잠”과 관련되는 게으름의 문제를 묘사 그대로 말씀한 경우도 있다.

잠 24:33 벼가 좀더 자자, 좀더 줄자, 손을 모으고 좀더 높자 하나 뜨오리 밤중이 강도 같이 오며 34 높은이 큰사 같이 이르러라

이 경우에는 묘사 그대로 보면 되는 게으름의 문제이고 이런 자는 세상적인 면으로도 하나님의 적인 면으로도 다 문제가 되므로 군이 상정적인 의미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잠이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앞의 묘사인 벼가 주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 쓰는 상정은 대개의 상정이 그 뿌듯이 그 근간이 창세기에 있다.
창세기는 이 땅의 의미를 이념과 사상의 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인이 세운 애로 토(사망)한 뒤에 그가 세운 레센 토(사망의 통합을 사망),
세우다 돌아간 바벨의 토과 토(대). 그리고 세傑 토, 나험 토, 루스 토, 모두는 이념과 관
계되는 토이고 반어를 위한 성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세상적인 이념과 사상의 토이 아닌 하나님의 토은 세운 토이 있다.
그것은 토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고 토(성음)이라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토는
은 이념이 세운 브엘세바 토에 극한하고 그 이상은 기록되어있지 않다.

본문의 황عوا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으로 자신이 세운 자신의 이념과 사상이 하나님의
의 토과 맞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논리이자 세상적인 유구의 논리이며 따라서
그런 이념과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헤패가 불가능하고 그런 이념은
영원하지 못한다면 것이 하나님의 지켜 주시지 않으면 황عوا는 뜻이다.

즉 이런 사상은 기독교 안에서도 훈히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같은 성경을 가지고 논하더
라도 그 논하는 논리가 지식의 인 번에서의 주장이라면 그것은 토인 것이고 하나님의
이 주신 케달음에 의한 논리라면 그것은 토으로써, 곧, 임합이 됨으로 가换届라는 뜻이
다.

이런 토이 되는 시작은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텅”으로 스스로가 스
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내가복음”과 같은 자기식 해석이 그 시작으로 그런 수교는 황عوا 것이며 그런 주장이
차차 하나의 윤곽을 이루는 것이 “깊”이라는 표현이다.

이런 “깊”은 차차 모이고 모어서 “토”이 되고 그런 성은 지금도 도처에 있는데 만약 그
들이 그 주장의 위에 무엇인가 “흙”와 같은 것을 올린다면 그것이 “바벨의 토과 토”이며
제시목에 기록된 “큰 토 바벨론”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성도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지키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깊”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을 통하여 그 성도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役事하시는데 하나님이 뜻을 설명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말씀을 예로 들면 육기의 말씀으로 고통 받는 성도인 육에게 가르쳐서 두근 두근 세 친구 들의 교리적 설명이 막혀 들어가지 않고 육은 육으로서의 주장을 귀하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조용히 걸 때 등장한 엘리후가 한 맘 중에 하나님의 役事하시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다.

율 33:15 사람이 침상에서 술머 길이 잠들 때이나 꿈이나 밤의 이상 중에 16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향하시기에 하시는 役事로써 그 役事가 “잠” 또는 “이상”중에 하신다고 되어있다.
이 잠이나 이상은 우리의 육신이 취하는 수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수면인 꿈상이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인치듯 교훈하신다.
이것은 강하게 役事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우 작고 섬세하게 하시는 듯으로 잘못하면 넘어가버리기 쉽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즉, “인 치시듯”이 그 의미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인 치다는 뜻은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조용하다는 것으로서 요즘의 도장 찍기와는 다른 것이다.
요즘의 도장은 나무나 뼈로 되어있으므로 “장” 찍는 것이 예시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인 치는 점토판에 찍는 행동을 말하므로 점토판에는 살며시 조심스럽게 그리고 섬세하게 찍지 않으면 안 되듯이 매우 섬세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마음을 열고 잘 이해하려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다는 듯이다.
그러나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 때 하나님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라는 말씀으로 이는 들을 만한 귀를 주시고 또 마음도 주신다는 뜻으로 곧 성령의 役事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役事하시의 목적은 오로지 그가 자기의 신임 내가복음에 영원히 빼지지 않게 하려함으로 그 다음의 말씀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율 33:17 이는 사람으로 그 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
라 18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깔에 밀방치 않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자기의 주장인 “죄”와 “교받”, 그리고 그런 결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덩이” 에서 건지시려는 그 하나님의 곧 “사랑의 하나님의”이시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고 그런 계속을 “잡”이라는 표현으로 인간이 잡을 자지 않으면 안되듯이 늘 잡을 자듯이 하나님은 늘 잡시하신다는 말씀인 것이다.

그리므로 그런 잡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죄의 경지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얻는 것이 다음으로 계속되는 “자식”이라는 결과인 것이다.

시 127:3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되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식이 주는 의미는 유적인 자식이 아니고 영적인 죄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를 상대하는 원수, 곧, 사람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가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은 사명을 의미하며 그런 사명은 일상의 고통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상급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사명의 이룰 수 있는 죄의 경지는 사탄의 술수를 넘어뜨릴 수 있는 화살과 같은 형으로 그들을 그들의 세계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죄의 경지를 젊은 자가 가질 때 그의 남은 생이 늘은 자보다 많으므로 그가 남은 생을 통하여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잡시가 더 많음과 동시에 그의 상급마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